

조선 후기 策題와 출제 경향에 관한 일고찰*

- 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 -

박선이*

|| 차례 ||

- I 머리말
- II. 肅宗·英祖代의 策題와 출제 경향
- III. 正祖代의 策題와 출제 경향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숙종 대부터 정조 대까지 출제된 策題 가운데 당대 학술과 관련된 策題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策題의 출제 경향성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주자학 일변도의 흐름 가운데 학술과 문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자학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이 동요되었다. 正祖代에 이르러 학술적인 측면이나 문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正祖를 중심으로 주자학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은 肅宗·英祖代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당대 策題에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당대 학술과 관련하여 肅宗·英祖代에 출제된 策題는 理氣心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732).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수료.

性과 人物性同異에 대한 논의, 朱子의 존송과 朱子書에 대한 시각, 儒家諸書의 조명과 재 탐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金昌協이 試官으로 있을 때 출제한 「辯理氣」는 실제 策題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策題를 출제한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策題가 출제되었던 배경은 四端七情論爭, 人心道心論爭과 함께 조선 시대의 3대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人物性同理論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던 당대의 학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자의 존송과 주자서에 대한 의미부여를 담은 尹鳳朝의 「朱子諸書」와 儒家諸書를 조명하고 재탐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林象德의 「傳註之作」 역시 당대 학술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正祖代에 출제된 策題는 명말 청초 학술에 대한 비판, 주자학의 정통성과 가치 재확립, 당대 문장의 典範 제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정조 15년(1791)에 抄啓文臣과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정조가 출제한 「俗學」은 정통 性理學을 벗어난 양명학, 고증학, 학자들의 학설, 문장에서 蟲刻鷄距함을 추구하는 七子五子之派의 문장 등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풍조를 이루고 있는 명말 청초 학술에 대한 정조의 비판적 입장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策題로, 정조는 이와 같은 策題의 출제를 통해 정통 朱子學으로의 회귀를 강구하였다. 到記儒生과 抄啓文臣을 대상으로 출제한 「心」에서도 주자의 해석과 正說을 第一義로 여기고 우위에 둬으로써 朱子學이 공격받는 당대 학술 경향 속에서 朱子學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그 가치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정조의 적극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 策題, 策問, 肅宗, 英祖, 正祖, 學術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 후기 숙종·영조 대부터 정조 대까지 출제된 策題 가운데 당대 학술과 관련된 策題를 중심으로 시기에 따른 策題의 출제 경향

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策題는 조선시대 科擧 가운데 文科의 初試와 覆試의 終場과 殿試에서 출제되었던 시험인 策文에서 응시자에게 출제된 시험 문제를 일컫는 용어로, 策問 또는 制策이라고 한다. 策文은 時事와 時務에 관한 질문을 내고 그에 대한 답안을 요하는 시험과목으로, 응시자의 당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함께 작문 능력을 시험하였다. 고려 광종대 과거가 처음 시행되었던 때부터 출제된 시험과목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終場에서 출제되었던 만큼 科擧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지금까지 策文에 대한 연구는 策文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 구성 방식¹⁾, 그리고 策題와 對策을 검토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策題와 對策에 대한 선행 연구와 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策題와 對策에 대한 연구는 策題와 對策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책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개괄한 연구²⁾, 조선 전기 문학 사조를 고찰한 연구, 개인의 사상과 정치관 혹은 당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 등을 고찰한 연구³⁾, 특정 시기에 시행

- 1) 최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책문준적(策文準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pp.381-404; 「朝鮮前期 策文과 士의 世界 認識-『殿策精粹』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pp.355-382;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이담북스, 2020; 이상옥, 「조선 과문(科文)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5; 이상옥, 「조선 후기 과책 참고서의 작법 요령 -『策型』과 『駢儷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72집, 열상고전연구회, 2020, pp.459-495.
- 2) 심재권,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제37집, 한국행정사학회, pp.183-208.
- 3) 정경주, 「과문대책에 나타난 조선조 문장관 연구 - 조선전기 문장책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1집, 동양한문학회, 1985, pp.123-160; 김근환, 「栗谷 李珥의 策文 번역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6; 도현철, 「대책문을 통해본 정몽주의

된 정책을 조망한 연구⁴⁾, 조선시대 經世觀을 검토한 연구⁵⁾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正祖가 출제한 策題와 對策에 대한 연구⁶⁾가 상당량

국방 대책과 문무겸용론, 『한국중세사연구』 제26집, 2009, pp.233-264; 도현철, 「이색의 유교화론과 일본 인식: 새로 발견된 대책문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4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pp.151-174; 도현철, 「안축의 대책문과 이민족 대책」, 『한국사상사학』 제3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1, pp.57-88; 김형수, 「策問을 통해 본 李齊賢의 現實認識」, 『한국중세사연구』 제13집, 2002, pp.179-206; 김현옥, 「成三問과 申叔舟의 策文에 나타난 現實認識 比較」, 『한문학논집』 제33집, 근역한문학회, 2011, pp.35-72; 안소연, 「금남 최부의 정치 활동과 인재관: 성종17년 重試 책문과 최부의 대책문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49집, 2018, pp.199-227; 도현철, 「대책문을 통해본 정몽주의 국방 대책과 문무겸용론」, 『한국중세사연구』 제26집, 2009, pp.233-264.

- 4) 정옥재, 「性齋 許傳의 경세론: 「三政策」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제19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pp.405-437; 「인조조 과거를 통한 行錢 문답과 行錢策 - 인조 11년(1633) 策問과 對策 분석」, 『東洋古典研究』 제64집, 동양고전학회, 2016, pp.165-193; 강혜중, 「古歡堂 姜瑋의 「擬三政揀弊策」에 나타난 작자의식과 서술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제85집, 한국문학회, 2020, pp.97-134; 강혜중, 「復齋 李集濬 「三政策」의 서술 양상과 경세론」, 『열상고전연구』 제72집, 열상고전연구회, 2020, pp.423-458; 강혜중, 「계유년(1633) 法制策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75집,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pp.261-288.

- 5) 안소연, 『조선시대 책문책답』, 역사문화, 2019.

- 6) 김운조, 「〈文體策〉 연구」, 『한국한문학회』 제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pp.339-362; 양원석, 「정조 문자책문에서의 문자학제설에 대한 논의 (1)」, 『민족문화연구』 제4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pp.185-225; 김현옥, 「정조의 책문에 나타난 애민사상 연구」, 『漢文古典研究』 제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pp.127-154; 김현옥, 「정조의 인재관 연구 - 책문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제28집, 근역한문학회, 2009, pp.91-124; 김현옥, 「책문에 나타난 정조의 학문관」, 『漢文古典研究』 제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pp.155-176; 김현옥, 「正祖의 經世思想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문식, 「正祖 · 丁若鏞 · 徐有集의 十三經 이해」, 『다산학』 제16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pp.23-58; 정순우, 「18세기 「俗學」론의 推移와 다산」, 『다산학』 제21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pp.153-182; 「18세기 후반 文字學을 둘러싼 논점들- 正祖의 文字策과 이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제39집, 남명학회, 2013, pp.241-273; 김동민, 「正祖의 策問: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研究』 제56집,

축적되었는데, 정조 대 策文을 대상으로 당대 정치·사상·학술의 일단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策題와 對策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특정 시기 혹은 특정 문인의 策題와 對策에 국한된 단편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통시적인 관점에서 策題의 출제 경향과 그 흐름을 조망한 연구는 드물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출제된 策題 가운데 제왕학·경제학·인재 등용 등 정치와 관련된 주제 다음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던 분야가 학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肅宗代부터 正祖代까지의 策題 가운데 학술과 관련한 策題를 중심으로 시기에 따른 策題의 출제 경향을 고찰하고 그 의미와 당대 학술과의 관련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肅宗代부터 正祖代까지의 학술과 관련한 策題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肅宗代부터 正祖代까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기존 科擧 체제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科擧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과거제의 변천사에서 주목을 요하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實學과 陽明學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전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주자학을 추구하는 학자들 내에서도 학술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또 문체의 측면과 관련하여 기존의 文風을 쇄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문체의 典範을 제시한 正祖의 문체정책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 결과 이 시기의 策文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제도, 학술, 문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시각과 개인적 차원의 시각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담겨있다.

동양고전학회, 2014, pp.171-207;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제127집, 진단학회, 2016, pp.131-157.

策題는 특정 개인이 지향하는 이념과 학술사상이 아닌 당대 학자들과 문인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을 대변하고 당대 학술의 조류와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당대 학술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對策 뿐 아니라 策題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술에 관한 동일 주제의 경우 策題와 對策을 비교·고찰함으로써 당대 학술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숙종 대부터 정조 대까지 학술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國朝榜目』, 『科策』⁷⁾, 개인문집에 수록된 策題들 가운데 학술과 관련된 策題들을 대상으로 시기별 출제 경향과 그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策題로 출제된 학술의 주제와 당대 학술과의 관련성 및 실제 策題에서 논의의 쟁점이 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당대 학술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⁸⁾

7) 『科策』[古朝44-가89]은 1705년(숙종 31)~1827년(순조 27)까지의 試券들을 선집한 試券 모음집이다. 총 6책의 필사본으로 식년시, 증광시, 정시 등의 初試와 覆試에서 출제된 策題와 각 시험에서 제출된 시권들을 연도별로 수록하였다. 각 책에는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목록에는 시험의 종류와 장소 및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策題의 주제가 기재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적인 서지사항은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pp.32-33에 자세히 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策文準의’으로 서명이 등록된 동일한 서명의 『科策』[한고31-115]이 존재하는데 17세기 후반 문과 初試와 覆試에서 출제된 策題와 對策을 주제별로 분류한 策文選集이다. 전체적인 서지사항은 박재경, 앞의 책, 2020, pp.50-52에 자세히 다.

8) 본고의 논의 대상인 학술 관련 策題 가운데 개인문집에 수록된 策題들은 박재경, 앞의 책, 2020, pp.345-369에 수록된 ‘한국문집총간 수록 策文의 策題 목록’을 참조하였다.

II. 肅宗・英祖代의 策題와 출제 경향

조선 후기에는 朱子學 일변도의 흐름 가운데 학술과 문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朱子學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이 동요되었다. 正祖代에 이르러 학술적인 측면이나 문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正祖를 중심으로 朱子學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은 肅宗・英祖代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당대 策文에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肅宗・英祖代에 활동했던 인물들의 문집에 수록된 策文 가운데 당대 학술과 관련된 策題들을 검토하여 과연 당대의 학술에서 어떠한 주제가 쟁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理氣心性和 人物性同異에 대한 논의

조선 후기의 性理學에 대한 탐구는 이전 시기의 朱子學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心性論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중 핵심적인 주제는 人物性同異論, 人心道心說, 四端七情論, 本然氣質 등 주로 理氣心성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실제로 다수의 학자들이 논변의 형식을 통해 정치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학파를 형성하여 각기 定論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논의는 바로 人物性同異論이다.

人性和 物性の 同異에 대한 견해는 18세기 이전에도 丁時翰(1625~1707), 朴世堂(1629~1703), 金昌協(1651~1708) 등에 의해 단편적으

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에 들어와 權尙夏(1641~1721)의 문하에서 학문적 논쟁 성격의 論辨으로 확대되었다. 李柬(1677~1727)을 비롯해 人物性同論을 주장한 湖論과 韓元震(1682~1751)을 비롯해 人物性異論을 주장한 洛論 간에 학파적 대립 양상을 이루었는데, 이 논쟁이 이른바 ‘湖洛論爭’이다.⁹⁾ 아래의 金昌協이 試官으로 있을 때 출제한 策題를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보자.

理와 氣를 분변하다 [辯理氣]

문노라. 학자들은 性命을 논할 때에 반드시 理氣를 거론하는데, 이기는 과연 어떤 물건인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선후가 있는가, 선후가 없는가? 경전의 말 중에는 이기를 나란히 거론한 것이 없다. 『易傳』에는 ‘形而上을 道라 하고 形而下를 器라 한다.’ 하였는데, 先儒는 이것을 이기에 대한 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기라 하지 않고 道, 器라 한 데에 혹시 과연 다른 뜻이 없었겠는가? 『易傳』에 또 ‘한번은 음이 되고 한번은 양이 되고 하는 것을 도라 한다.’ 하고, 또 ‘易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兩儀를 낳는다.’ 하였는데, 先儒는 이 또한 이기에 대한 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설을 따르면 理가 곧 氣이고, 후자의 설을 따르면 이를 말미암아가기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공자에게서 나왔는데 그 뜻이 합치하지 않는 것은 어찌서인가?……(중략)……대체로 이기에 대한 설은 옛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던 것인데 후세에 이르러 논변이 점차 많아졌다. 이것이 과연 학문하는 데에 절실하여 방입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명확히 분별하여 여러 설의 同異와 得失까지도 모두 의심이 없이 절충할 수 있겠는가? 諸生은 필시 이에 대해 평소 강론한 바가 있었을 것이니,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각기 생각하는 바를 남김없이 조목별로 진술하라.¹⁰⁾

9) 윤사순, 『한국유학사: 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 지식산업사, 2012, pp.497-499 발췌요약.

이 策題는 金昌協이 試官으로 있을 때 출제한 策題로 추정된다.¹¹⁾ 이는 性理學의 本領이 되는 理氣의 本源, 同異, 先後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기존에 理氣의 개념을 설명한 經傳의 내용을 망라하고, 그에 대해 논한 先儒의 다양한 說을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평소 응시자가 강론하면서 견지했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있다. 마지막 단락의 “대체로 理氣에 대한 설은 옛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던 것인데, 후세에 이르러 論辨이 점차 많아졌다. 이것이 과연 학문하는 데에 절실하여 방임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명확히 분별하여 여러 說의 同異와 得失까지도 모두 의심이 없이 절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策題를 출제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策題가 출제되었던 배경은 四端七情論爭, 人心道心論爭과 함께 조선 시대의 3대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人物性同理論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던 당대의 학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숙종 3년(1677)에 시행된 증광시의 초시 혹은 복시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 理氣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학설을 제시한 학자들의 이견에 대한 응시

10) 金昌協, 『農巖集』 卷26, 「辯理氣」, “問：學者之講性命，必曰‘理氣’，理氣者 果何物歟？其同歟異歟？有先後歟？無先後歟？經傳之言，無以理氣並稱者。惟易傳曰，‘形而上謂之道，形而下謂之器’，先儒以爲此理氣之說也。然不曰‘理氣’而曰‘道器’，則豈果無他義歟？易傳又曰，‘一陰一陽之謂道’。又曰，‘易有太極，是生兩儀’。先儒以爲此亦理氣之說也。然由前之說，則是理卽氣也，由後之說，則是由理而生氣也。二說者，同出於孔子，而其旨不合，何歟？……(中略)……大抵理氣之說，古人所罕言，而至後世辨論漸多，此果切於爲學而不可緩者歟？何以則於此二者，有以深究明辨，而諸說之同異得失，亦皆得以折衷無疑歟？諸生必有素講於此者，其各悉意條陳，無拘程式。”

11)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2에 수록된 연보를 참조하면 이 策題는 金昌協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재임하였던 시기인 1686년(숙종 14)과 1687년(숙종 15)에 출제한 策題로 추정된다.

자들의 생각을 묻는 策題에서도 人物性同理論과 관련한 사안들을 살필 수 있다.¹²⁾ 다음으로는 林象德의 策題를 살펴보자.

신령스러움 [靈]

문노라. 일반적으로 사물이 지극히 텅 비고 형태가 없어도 그 이치가 어
 듭지 않은 것을 ‘신령스러움 [靈]’이라 한다. 사람이 가장 신령스럽고, 신령
 스러움[靈]을 달리하는 것이 사물이고, 신령스러움[靈]에 응하는 것이 神이
 니, 그 이치를 모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 이치의 가장 온전
 한 형태를 부여받았지만, 신령스러운 上智의 수준도 있고, 어둡고 완악한
 下愚의 수준도 있다. 사물은 이 이치의 편벽된 형태를 얻었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도 있으며, 사물이 홀로 아는 신령스러움도 있다. 신령스러움은
 이 이치의 오묘한 작용이지만, 분명히 드러나게 감응하는 경우도 있고, 어
 두워서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치는 하나인데 각기 다른 것은 어째서
 인가? ……(中略)…… 그렇다면 이전에 말했던 사물의 신령스러움과 神의
 신령스러움은 모두 사람의 신령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사람이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영험하여 귀신의 길흉과 부합하는 까닭은 어떠한 형태의
 지극히 신령한 물건이 있어서인가. 만일 사람과 神에 통달하기를 배우고
 만물의 작용을 알아서 만물 가운데 가장 영험하다는 명칭에 부끄럽지 않거
 를 바란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湖南은 평소 신령스러운 지역이라 일컬
 어지니, 반드시 사물의 이치에 널리 통하고 神에 대해 궁구한 군자들이 있
 을 것이다. 현묘한 이치를 탐구하고 미묘한 이치를 궁구하는 논의를 듣고
 자 하노라¹³⁾

12) 『科策』[한고초31-115]

13) 林象德, 『老村集』卷6, 「靈」, “問: 大凡物至虛無形, 而其理不昧者, 謂之靈. 人之最靈, 物之靈異, 神之靈應, 其理皆可詳歟? 人受此理之大全, 而或有上智之神靈, 或有下愚之冥頑. 物得此理之偏塞, 而或有人所不知之事, 物能獨知之靈. 神爲此理之妙用, 而或昭昭而顯應, 或茫昧而難知, 理一而各殊者, 何歟? ……(中略)……然則向所謂物之靈神之靈, 皆不外乎人之靈, 人之所以爲萬物之最靈, 合鬼神之吉凶者, 抑有何據至靈底物? 而如欲學通乎神人, 知用乎萬物, 無愧其最靈之名, 則其道何由? 湖

이 策題는 林象德이 全羅都事로 재직하던 1707년(숙종 33)에 靈光의 東堂에서 낸 策題이다. 지극히 비고 형체가 없지만 그 이치가 어둡지 않은 ‘靈’을 ‘物之靈’, ‘神之靈’, ‘人之靈’으로 구분하고,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영험하고 ‘人之靈’이 ‘物之靈’과 ‘神之靈’을 주재할 수 있는 이유와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영험하다는 명성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효용에 대해 묻고 있다. 보통 心의 본체를 ‘虛靈不昧’라고 일컫고, 『大學章句』 경 1장에 대해 朱熹가 주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 얻은 것으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서 온갖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고 하였으므로, ‘靈’에 대한 논의 역시 心性과 관련된 학술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는 策題이다.

2. 朱子의 존숭과 朱子書에 대한 시각

주지하다시피 조선 시대의 통치원리와 학술의 중심에는 程朱의 性理學이 있었기에 朱子의 권위와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 성리학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敎條的인 성격으로 계승되고 운용되었다. 그러나 성리학이 통치이념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던 조선은 현실적으로 성리학적인 사유와 통치에 의한 제도적인 모순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에 대한 회의와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朱子의 권위와 영향력은 도전을 받게 된다. 程朱의 性理學의 사상들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며 ‘脫性理學的 儒學 形成’에 선두에 나선 尹鑄(1617~1780)와 朴世堂(1629~1703)인물들이 바로 그들이다.¹⁴⁾ 그러나 이들의

南素稱地靈, 必有博物窮神之君子, 願聞探玄索微之論.”

이러한 도전은 ‘斯文亂賊’으로 낙인찍히며, 기존의 정주학을 신봉하던 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배격을 받았다.

또 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에는 程朱學을 부정하는 陽明學에 호응하거나 적어도 호의로 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張維(1588~1638)처럼 양명학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학자들도 있었다. 그 후 17세기~18세기 초에 鄭齊斗(1649~1736)와 같은 인물은 양명학에 적극 몰두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양명학의 대두는 反朱子學의 성격으로 인해 조선 후기 脫性理學의 실학의 발흥에도 영향을 주었다.¹⁵⁾

程朱로 대표되는 性理學에 대한 도전하는 학자들의 출현은 학문의 다양성과 관계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程朱學 특히 朱子學을 신봉하던 기존 지배층에게 이러한 도전은 기존의 통치체제를 뒤흔드는 큰 위협이었다. 이러한 도전적인 학자들이 출현할수록 조선 후기 성리학은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자학 일변도로 편향되어 갔으며, 朱子를 존송하고 朱子書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더욱 굳어져 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尹鳳朝의 策題를 살펴보자.

朱子の 여러 서적[朱子諸書]

문노라. 朱子가 저술한 여러 서적은 대지가 만물을 그 위에 실어 주듯 바다가 온갖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듯 넓은 규모를 지니고 있고, 義理가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후학들이 마땅히 익숙하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해야 할 대상이다. 저술로는 성대하고 넓은 『朱子大全』이 있고, 答問으로는 자세하고 상세한 『朱子語類』가 있으니, 그 사이의 논의가 정밀하지만 초년과 만년의 차이가 없는 것인가? ……(中略)……대체로 朱子를 배우는 자들은

14) 윤사순, 위의 책, 2012, pp.413-414 발췌요약.

15) 윤사순, 위의 책, 2012, p.470, p.496 발췌요약.

반드시 먼저 朱子의 서적을 읽은 뒤에 그가 어디에 마음을 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니, 비로소 착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 오만한 자세로 덩불로 길을 막고 침몰하게 만들었다고 朱子를 드러나게 비판하는 자들은 바로 陸九淵의 頓悟가 되어 결국 스스로 異學에 빠지게 될 것이니, 경계하지 않아 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文教가 크게 융성하여 훌륭한 儒學者가 이어져 나와 朱子를 스승으로 존송하고 朱子의 著書를 드러내어 밝혀 온 힘을 기울였으나, 그 서적이 너무나 많아 읽기가 어려웠다.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가 이로 인해 제작되었으니, 선비들이 모두 그 서적을 존송하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세속이 오히려 야박해지고 선비들의 습속이 무너져 朱子의 글을 외고 섭렵한 자들은 표절하여 과거에 급제하는데 지나지 않고, 역시 수준 높은 담론을 거침없이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단지 흉내만 내어 말하는 것을 배웠을 뿐, 각별하게 뜻을 두고 힘을 써서 朱子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어찌 朱子가 당시에 後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던 뜻이겠는가? 諸生들은 朱子의 서적을 외우고 익혀 역시 모두 朱子를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필시 분발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을 터이니, 한 번 다 말해보도록 하라.¹⁶⁾

이 策題는 朱子의 서적에 朱子의 넓고 큰 學德이 담겨져 있고 義理가 자세히 갖추어져 있어 後學이 반드시 읽어 마음에 체득해야 하는 서적을 강조하고, 朱子의 서적에 대한 응시자들의 학문적 견해를 진술하

16) 尹鳳朝, 『圃巖集』 卷16, 「朱子諸書」, “問: 朱夫子所著諸書, 地負海涵, 義理纖備, 後學所當熟讀而心體者也. 著述則有大全之浩汗, 答問則有語類之詳瞻, 其間言議粹然, 無初晚之不同歟? ……(中略)……大抵學朱子者, 必須先讀朱子書然後, 庶幾識其用心, 而始可下手矣. 彼傲然以榛塞陸沉, 顯加譏訾者, 是爲江西頓悟而終自墮於異學, 可不戒哉? 我國文教丕興, 儒賢繼出, 所以師仰朱子, 表章朱書者, 靡不用極, 慮其書之汗漫難讀, 而節要酌海之編, 於是乎作, 士皆知尊其書而頌說之矣. 然而俗尙漸靡, 士習波頹, 其所以記誦獵涉者, 不過爲剽竊決科之地, 而亦或有高談闊步者, 只學爲依樣說話而已, 未有刻意邁往, 遵蹈其言之人, 此豈朱子當日嘉惠後學之意哉? 諸生誦習朱書, 亦皆願學朱子者也, 其必有慨然自省之心, 試盡言之.”

라는 내용의 策題이다.¹⁷⁾ 말미에서는 조선 전기 이후로 주자와 그의 저서를 존송하는 풍토가 형성되었으나 응시자를 비롯한 선비들이 科擧를 준비하느라 암송하는 공부와 표절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주자가 강조했던 학문의 본연에는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당대 선비들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조 4년(1728) 별시 초시에서 출제된 「良知良能」과 영조 35년(1759) 별시 초시에서 출제된 「靜坐」와 같이 주자학에 대치되는 학설에 비판적 입장을 담은 策題과 숙종 28년(1702) 식년시 회시에서 출제된 「七書春秋」, 숙종 51년(1725) 증광시 초시에서 출제된 「禮記」, 영조 35년(1759) 별시 초시에서 출제된 「家禮」·「靜坐」와 같이 주자의 학설을 존송하는 내용을 담은 策題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3. 儒家諸書의 조명과 재탐구

이 시기에 朱子の 존송과 朱子書에 대한 의미부여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 儒家諸書에 대한 조명과 재탐구이다. 儒家諸書 가운데에서 특히 학문의 기초이자 본령이 되었던 바탕은 바로 四書三經을 비롯한 經傳이었으며, 경전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는 先儒가 남겨 놓은 경전에 대한 傳註였다. 傳註는 선비들이 경전의 탐구와 과거 시험을 위해 경전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朱子の 集註였다.

17) 尹鳳朝, 『圃巖集』 韓國文集叢刊 193에 수록된 연보를 참조하면 이 策題는 尹鳳朝가 1719년(숙종 45)에 시행된 增廣試 혹은 1726년(영조 2)에 시행된 式年試의 考試官이었을 때 출제한 策題로 추정된다.

18) 『科策』[古朝44-가89]

이와 관련하여 다음 林象德의 策題를 살펴보자.

傳과 註의 제작[傳註之作]

문노라. 經書가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에 傳과 註가 만들어졌으니, 傳과 註는 經書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發明하는 수단이다. 唐虞의 시대는 오래되었으므로 논의를 할 수가 없고, 후대로 내려와 夏나라와 商나라의 伊尹과 傳說 같은 무리는 말을 갈고, 성을 쌓으며, 道를 즐기던 시기에 반드시 강론하고 기술한 典謨의 서적이 있을 터인데, 후세에 전하는 것이 없다. 성대했던 周나라 때에 周公이 禮樂을 만들고 제정하여 후세에 가르침을 남겼으나 다만 傳과 註를 제작하지 않았다. 어쩌면 三代 이전에 道學이 크게 밝아 비록 新學이 조금 생겨나도 모두 經書의 난해한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傳과 註를 만드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인가? ……(中略)……科擧와 詞章의 학문의 경우에는 人心과 관련된 학술을 무너뜨리고, 모두 聖賢의 글을 科擧에 표절하는 용도로만 쓰니, 이 점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근래에 明經科의 경우는 그 폐해가 더욱 심하다. 明經科를 만든 본래 의도를 말해보자면 科擧를 준비하는 선비들이 모두 三經과 四書의 의미와 함께 程子和 朱子の 註에 관한 설에 통달하여 입으로 익혀 背誦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그 폐단에 이르러서는 三經과 四書의 뜻을 전혀 모르고 단지 口訣만을 익힌다. 비록 많은 말이라도 착오 없이 다 외우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여 또 도리어 詞章學만도 못하니, 이 역시 註의 說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註에 따라 輕書를 이해하고 輕書에 따라 道를 깨우쳐 周濂溪와 朱子와 같은 여러 군자들이 後學에게 가르침을 주고 은혜를 베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자 한다면 그 학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諸生은 필시 輕書에 통달하고 道를 아는 군자일 터이니, 분명하게 해명하는 논의를 듣고자 하노라.¹⁹⁾

19) 林象德, 『老村集』 卷6, 「傳註之作」, “問: 經書難解而傳註作, 傳註者, 所以發明經書難解之旨也. 唐虞之世尙矣, 無容議爲, 降及夏商如伊尹傳說之徒, 耕築樂道之時, 必有講述典謨之書, 而後世無傳焉. 成周盛時, 周公撰定禮樂, 以詔來世, 而獨未有

原註를 참고하면 策題는 林象德이 全羅都事로 있을 때 출제한 策題로 보인다. 이 策題에서는 먼저 傳註가 본래 聖賢이 남긴 經書의 난해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저술되었고, 朱子가 남긴 集註 등의 저술에 경전의 난해한 뜻이 대부분 유감없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응시자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科擧의 詞章이나 明經에서 口耳之學만을 일삼아 과거 합격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폐해에 대해 언급하며 朱子를 비롯한 先儒가 後學에게 傳註를 남긴 은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을 묻고 있다. 이러한 策題를 통해 당시 응시자들이 학술적인 면에서 경전을 비롯한 儒家諸書를 공부하면서 지니고 있었던 병폐와 실제 과거시험과 관련된 문제점을 함께 고찰할 수 있다.

Ⅲ. 正祖代의 策題와 출제 경향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에는 陽明學·陽明左派·考證學·小說·小品 등 明代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유로 모두 주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있었다. 陽明學과 陽明左派는 儒學이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이단이

傳註之作，豈三代以前，道學大明，雖新學小生，皆能盡解經書難解之旨，故無事乎傳註歟？……(中略)……至於科擧詞章之學，壞人心術，都將聖賢文字，爲程式剽竊之用，此固可歎，而若近世明經之科，其弊爲尤甚。原其建設之本意，則欲使科擧之士，盡通三經四書之旨，並與程朱註說，無不口習而背誦之，可謂難矣。而及其弊也，專味旨義，只靠口訣，雖千言萬語，誦盡無錯，而心識黑暗，又反不如詞章之學，此亦可以歸咎於註說太明之故歟？如欲緣註而解經，因經而悟道，無負濂閩諸君子教惠後學之意，則其術何居？諸生必有通經識道之君子，願聞八字打開之論。【右二首湖儒有來請題者，使之執筆口占授之。】”

었고, 考證學은 학문의 엄밀성과 經典學을 빌미로 삼아 朱子學을 부정하고 해체하려하였다. 小說과 小品은 절제하거나 억압해야하는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주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있었다.²⁰⁾

正祖(1776~1800)는 조선 후기 학술에서 정통성을 유지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朱子學이 공격받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군주이자 통치자였던 正祖의 입장에서 볼 때, 朱子學에 대한 공격과 그로 인한 동요는 곧 당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正祖는 학술 분야 뿐 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문체에 있어 체제에 반하는 科文의 변화와 그 흐름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순정한 古文을 지향하고 이를 선별해 科文集으로 편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순정한 문장을 통해 朱子學的 사유의식과 통치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弘齋全書』에 수록된 策文 가운데 당대 학술과 관련된 策題를 확인하고 출제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당대 학술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명말 청초 학술에 대한 비판

조선 후기 18, 19세기의 학문 경향은 조선 性理學의 논리체계와 자생적인 문헌학적 연구방법의 기초 위에 淸朝의 考證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향과 陽明學의 사유와 漢學의 방법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程朱理學을 철저히 부정하고 淸朝의 考證的 학풍을

20)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p.218 발췌요약.

연 毛奇齡(1623~1713)의 經學說은 당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正祖는 朱子學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지식층의 학문을 수렴하기 위해 毛奇齡의 朱子 비판을 공박하고 清代 考證學의 번쇄한 經學論議를 경계하였다.²¹⁾ 이러한 학문 경향 속에서 正祖는 주자의 학설에 반박하는 모기령의 학설이나 고증 자체만을 일삼는 고증학을 순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명말 청초 학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담은 策題의 출제를 통해 정통 朱子學으로의 회귀를 강구하였다. 다음의 策題에서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세속적인 학문[俗學]

왕이 말하였다. 심하도다. 속학의 폐단이며. 명말 청초에 嚆殺하고 불온한 제가들의 문체가 출현하고부터 번잡한 문장과 너저분한 글이 화려하게 꽃피워, 談諧와 劇談을 조청이나 꿀보다 달콤하게 여기며, 송나라 선비를 지목하여 진부하다 하고 당송팔대가를 비웃어 판에 박은 듯 상투적이라고 한 지가 거의 백여 년이 되었다. ……(中略)…… 經義의 학문이라는 것은 짝을 맞추어 배열한 것이라며 虞書를 꾸짖고, 중복되었다고 雅頌을 욕하며, 石經은 賈逵의 작품이라고 하고, 『詩傳』은 子貢을 가차한 것이라고 하니, 성인을 비난하고 경전을 속이는 풍조는 豐坊과 孫鑛의 무리가 창도하였다. 해박한 학문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름을 관찰하고 考證에 엄매이며 잡서와 曲說에 탐닉하니, 방자하고 천착하는 풍조는 楊慎과 季本의 무리가 창도하였다. 문장학이라는 것은 고전의 金匱 속 구슬 같은 글을 읽고는 반드시 꾸짖고 헐뜯으며 문서 기록 같은 『兔園冊』의 주위 맞춘 것을 보았다 하면 떠들썩하다. 자랑으로 삼는 것은 蟲刻이고 비교하는 것은 鷄距이니, 裨販에 표절하는 풍조는 七子와 五子의 무리가 창도하였다. ……(中略)……내

21) 심경호, 「조선후기의 경학연구법 분화와 毛奇齡 비판」, 『동양학』 제2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9, pp.37-69 발췌요약.

비록 덕이 없으나 君師의 지위에 있으니 이를 위하여 깃발을 세우고 맹세의 명령을 내려 진위를 가리고 시비를 헤아려 혼탁한 일대의 문풍과 선비의 취향을 개정하고 돈박하게 되돌리는 것은 직분상 당연한 것이다. 이리하여 명말 청초의 제가의 잡서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구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실지를 이행하고 시속은 小品을 싫어하여 금지하지 않아도 경전이 아닌 책과 법이 아닌 말이 모두 단절되고 순수하게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의 도를 공부하게 하겠는가?²²⁾

이 策題는 正祖 재위 15년(1791, 辛亥) 11월 3일에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策題이다. 당시 초계문신들의 對策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성균관 유생으로 應製했던 尹愔(1741~1826)의 문집인 『無名子集』에는 正祖가 출제한 策題와 함께 그의 對策이 수록되어 있다.²³⁾

正祖는 策題에서 당대 문단에서 유행하던 명말 청초 패관 소품의 문체를 포함해서 명말 청초의 학파인 陽明 左右派와 毛奇齡(1623~1713)을 포함한 僞經害經의 무리인 豐坊孫鑛之派, 考證學에 치우친 일파인

22) 正祖, 『弘齋全書』 卷50, 「俗學」, “王若曰：甚矣，俗學之弊也。自有明末清初諸家，嚆殺詖淫之體出，而繁文剩簡，燦然茗華，詼諧劇談，甘於飴蜜，目宋儒爲陳腐，嗤八家爲依樣者，且百餘年矣。……(中略)……經義之學也，則以排偶訶虞書，重複訾雅頌，石經託之賈逵，『詩傳』假諸子貢，而非聖誣經之風，豐坊·孫鑛輩，爲之倡焉。淹博之學也，則察於名物，泥於考證，耽舐雜書曲說，而猖恣穿鑿之風，楊慎·季本輩爲之倡焉。文章之學也，則典冊之金匱琬琰，讀之必詆譏，簿錄之冤園釘飯，見之輒嘈囂。所矜者蟲刻，所較者雞距，而裨販剽賊之風，七子·五子輩，爲之倡焉。……(中略)……予雖否德，忝在君師之位，爲之建旗鼓申誓命，黜陟於眞僞，格量其是非，而一代之文風士趨，改澆漓，歸敦朴，職固宜然。是以有明末清初，諸家雜書購寶之禁，而禁寶猶未也，何以則人踏實地，俗厭小品，無事於禁，而并絕不經非法之書與言，純然用工於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之道歟?”

23) 尹愔, 『無名子集』 冊9, 「俗學之弊【辛亥應製】」.

楊愼季本之派, 문장에서 蟲刻鷄距함을 추구하는 七子五子之派 세 학파를 ‘俗學’으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²⁴⁾ 正祖가 ‘俗學’으로 규정한 명말 청초의 학파들은 정통 朱子學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正祖의 생각에 반하는 학술 사조를 지녔으며, 문장에서 蟲刻鷄距함을 추구하는 七子五子之派의 문장은 朱子學과 육경을 근본으로 한 정통 순정 고문을 내세우는 문장에 반하는 문장들이었다. 이는 당대 학술 사조에 대한 正祖의 비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정통 性理學을 벗어난 양명학, 고증학, 학자들의 학설, 문장에서 蟲刻鷄距함을 추구하는 七子五子之派의 문장이 풍조를 이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언급이기도 하다.

正祖가 재위 19년(1795) 12월 7일에 실시한 초계문신의 親試에서 출제한 ‘經術’²⁵⁾에서도 正祖의 고증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초계문신 가운데 壯元을 한 洪奭周(1774~1842)의 對策은 그의 문집에 正祖가 출제한 策題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²⁶⁾ 正祖는 策題에서 “지금 經術이라는 것은 어째서 이것과 크게 서로 거리가 먼 것인가. 物名에 주력하거나 기물에 지나치게 치밀하여 考證에 얽매이거나 변론에 집착하여, 대의가 귀결되는 곳을 제대로 탐구하여 작자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²⁷⁾라고 말하여 글의 大義와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考證의 辨博에만 치우치는 고증학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당시 문인들이 경학 연구에 있어 고증학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 “새로운 것을 중

24) 심경호, 앞의 논문, 1999, pp.47-48.

25) 正祖, 『弘齋全書』 卷51, 「經術」.

26) 洪奭周, 『淵泉集』 卷12, 「親試經術對策【抄啓壯元】」.

27) 正祖, 『弘齋全書』 卷51, 「經術」, “爾今之所謂經術者, 何與此大相遠也? 驚於物名, 詳於器械, 泥於考證, 膠於辯博, 而曾莫能究其大義之所歸, 以獲作者之心.”

아하는 것이 그 단서를 열었고 무엄함이 그 극한 지경을 초래했다”²⁸⁾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朱子學을 근간으로 경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2. 朱子學의 정통성과 가치 재확립

正祖代에 이르러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를 이어 朱子學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朱子學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그 가치를 재확립 하는데 있었다. 실제 正祖는 이전 시기를 이어 朱子의 존숭과 朱子書에 대한 정리와 편찬 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朱書百選』과 『紫陽子會英』 등의 편찬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자의 존숭을 통해 朱子學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재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正祖의 노력은 『弘齋全書』에 수록된 策題에도 그 일면이 드러난다. 『弘齋全書』에 수록된 策題는 크게 性理學의 개념에 대한 策題²⁹⁾와 유가 경전에 관한 策題³⁰⁾로 분류할 수 있다. 策題들의 개별 주제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儒家 개념어를 비롯하여 경전 이해에 바탕이 되는 傳註에서도 주자의 해석과 正說을 第一義로 여기고 우위에 두었다. 다음의 策題에서 이러한 경향을 살필 수 있다.

28) 正祖, 『弘齋全書』 卷51, 「經術」, “好新以開其端, 無嚴以致其極.”

29) 正祖, 『弘齋全書』 卷48~51, 「中」; 「信」; 「五行」; 「義利」; 「氣」; 「知」; 「儒」; 「敬」; 「心」.

30) 正祖, 『弘齋全書』 卷48~51, 「十三經」; 「周禮」; 「尙書」; 「儀禮」; 「春秋」; 「孟子」; 「中庸」; 「大學」; 「論語」; 「樂」; 「詩」.

마음[心]

왕은 말하노라. 마음이란 한 몸의 主宰이며 모든 조화의 근본이다. 이치[理]로 體를 삼고 기운[氣]으로 用을 삼아 이치와 기운의 사이에 처하여 이치와 기운의 중추가 된다.……(中略)……그러다가 濂溪·洛陽·關中·閩中에서 현인들이 무리로 나와 敬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마음의 공부로 삼으니, 가령 ‘一을 주로 삼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主一無適]’는 것과, ‘정돈되어 엄숙하다’는 것과, ‘그 마음이 수렴되어 조그만 사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항상 깨어 있는 방법 등의 술한 涵養의 방안을 친절하게 열어 보여 주었다. 이들은 공부가 치밀하여 충분히 역대의 고루함을 씻어 버리고 『小學』의 결손된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내가 의심하는 것은, 발로되기 전에는 진실로 아주 작은 인력도 용납할 수 없지만 또한 ‘일을 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주로 삼는다는 것은 유독 이미 발로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수렴한다’고 하였는데 수렴되는 것은 역시 이미 발로된 것이 아니겠는가?……(中略)……지금은 心學이 전해 오지 않고 학설의 갈래가 더욱 많아져서, 太極으로 마음을 삼는 자도 있으며, 氣質로 마음을 삼는 자도 있으며, 北辰으로 마음을 비유하는 자도 있으며, 印板으로 마음을 논하는 자도 있다. 얼마이면 병이 되고 넓히면 방자해지니 내가 이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제어하여 안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용도를 선하게 하여 체제에 달하게 할 수 있으며, 성심을 회복하고 망녕된 것을 제거하며 이치를 보존하고 욕심을 없애 버려서 먼저 큰 것을 세워 四海에 기준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자대부는 옛 투식을 버리고 정결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의 진실한 마음을 열어 주도록 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³¹⁾

31) 正祖, 『弘齋全書』卷51, 「心」, “王若曰: 心者一身之主宰, 而萬化之本根也. 以理爲體, 以氣爲用, 處理氣之間, 而爲理氣之樞……(中略)……及夫濂·洛·關·閩, 羣賢輩出, 拈敬之一字, 爲體上工夫, 如主一無適, 整齊嚴肅, 其心收斂, 不容一物, 常惺惺法, 多少涵養之方, 開示真切, 工夫縝密, 足以洗歷代之陋, 補小學之缺, 而若予之疑, 未發之前, 固難容纖毫人力, 且曰“主一”, 則主之者, 獨非已發, 且曰“收斂”, 則收之者, 亦非已發乎?……(中略)……見今心學不傳, 歧說滋多, 有以太極爲心者, 有以

이 策題는 正祖가 到記儒生の 秋試와 抄啓文臣 親試의 再試에서 출제한 策題이다. ‘心’은 조선 전기부터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策題이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군주가 다스림의 道를 펼칠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³²⁾ 그러나 正祖의 策題에서는 性理學의 요체인 心性, 性情論, 人心道心說 등 ‘心’과 관련한 性理學의 주요 학설과 논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心法에 대한 周敦頤, 程子, 張載, 朱子의 언급에 대해 “공부가 치밀하여 충분히 역대의 고루함을 씻어 버리고 『小學』의 결손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하여 朱子를 비롯한 宋代 학자들의 학설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책문의 첫구절에서 ‘心’의 정의에 대해 朱子가 ‘心’에 대해 정의한 ‘마음은 신명의 집으로 일신을 주재한다[心, 是神明之舍, 爲一身之主宰]’의 구절을 인용하여 ‘마음이란 한 몸의 主宰이며 모든 조화의 근본이다[心者 一身之主宰, 而萬化之本根也]’라고 하여 朱子의 說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尹愔(1741~1826)의 對策³³⁾에서도 “주자가 주장한 내용은 ‘마음[心]’의 채용과 시종을 아울러 거론하고, 마음의 眞妄과 邪正을 갖추어 논의하였기에, 神明不測한 오묘함과 存亡出入의 기미가 손바닥 보듯 분명하여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하 후세의 학자로 하여금 고찰할 바가 있어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으니, 그 공로가 위대하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朱子學을 존중하

氣質爲心者, 有以北辰比心者, 有以印板論心者, 泥之則病焉, 濶之則肆焉, 予甚懼之, 何以則制其外以安其內, 善其用以達其體, 誠復而妄除, 理存而慾泯, 先立大者, 準諸四海歟? 子大夫其擺却科臼, 研精覃思, 以開予求助之衷, 予將親覽焉.”

32) 박재경, 앞의 책, 2020, pp.210~211.

33) 尹愔, 『無名子集』 冊9, 「心」, “蓋其所以爲說者, 兼舉乎此心之體用始終, 備論乎此心之眞妄邪正, 其神明不測之妙, 存亡出入之幾, 瞭然指掌, 更無餘蘊, 使天下後世之爲學者, 得有所考而不迷於異途, 則其功可謂大矣.”

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3. 당대 문장의 典範 제시

正祖는 체제에 반하는 과거 문장의 변화와 그 흐름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순정한 古文을 지향하고 이를 선별해 科文集으로 편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순정한 문장을 통해 주자학적 사유의식과 통치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 일례로 正祖는 당송팔가문을 고문의 정종으로 제시하기 위해 재위 5년(1781)에 『唐宋八子百選』과 『八家手圈』을 편찬하였다.³⁴⁾ 『弘齋全書』에는 ‘八大家’와 ‘八子百選’이라는 策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正祖 재위 16년(1792)과 18년(1794)에 출제한 策題로, 두 冊文의 출제 배경에는 正祖의 문체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八大家’의 경우에는 1792년 문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에 출제한 策題로서 正祖가 試題를 통해 문장의 典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다음의 策題를 살펴보자.

팔대가(八大家)

왕은 말하노라. 『唐宋八大家文鈔』는 茅坤이 후세의 위작과 표절을 걱정하여 先覺들이 남긴 정수를 표준으로 삼아 영세토록 글을 쓰는 자들에게 표본을 보여 준 것이다. 西京은 아득하니 말할 것이 없겠으나, 先儒들은 蜀漢의 出師表와 晉나라의 歸去來辭를 문장 중 절묘한 시문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단지 당송의 글만 취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中略)……일종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시속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은 때

34)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p.237.

때로 팔대가를 비하하면서, “고문이란 것은 위작과 같고, 재주 있다는 것은 지푸라기와 같고, 기괴하다는 것은 말더듬이와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도하게 호르는 폐단은 오늘날에 이르도록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팔대가를 참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을 섬세하게 가지고 기운을 배양하는 방법은 반드시 옛 표본으로 軌範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국사를 돌보는 여가에 일삼아 서적을 섭렵하면서 작가의 진정한 본 모습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오랫동안 쌓인 고질의 습성을 씻어 보고자 하였는데, 그 요점은 『八大家文鈔』를 들추어내어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요긴한 것이 없었다. 인도하고 이끌어 모두 거스르지 않고 따르게 하여 당대의 공사 문자를 수준 높은 문장과 정중한 책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떠한 기술로 해야 하는가?³⁵⁾

正祖는 재위 16년(1792)에 人日製와 到記儒生の 春試에서 ‘八大家’를 策題로 출제하였다. 당시 성균관 유생으로 應製했던 尹愔의 문집에 正祖의 策題와 그의 對策이 수록되어 있어³⁶⁾ 이러한 策題가 출제된 배경과 응시자였던 尹愔의 八大家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正祖는 策題에서 표면적으로는 茅坤의 『唐宋八大家文抄』의 選評에 대해 묻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 策題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모범을 당송팔가에 둘 것을 천명한 것이다.³⁷⁾ 당대 小品의 유행을 따라 문인들이

35) 正祖, 『弘齋全書』卷51, 「八大家」, “王若曰：唐宋八大家文鈔，茅鹿門所以病後世之偽剽，標先覺之精粹，視千古操觚者之金石關和也。西京尚矣，先儒以蜀之出師表，晉之歸來辭，爲文章絕調，則是書之但取唐宋，何據歟？……(中略)……一種譁世炫俗之徒，往往卑夷八家，而古者如廩，才者如莽，奇者如吃，滔滔流弊，至于今莫可救正，然後知八家之眞不可少，而細心養氣之方，亦必待金石關和，有以型範也。予於萬機之暇，餘事涉獵，思欲以作家眞正之體段，洗百年積痼之習，而其要莫如『八家文鈔』之表章準的，則導之誘之，率由不畔，使當世之公私述作，一變爲高文典冊者，將何術以致之？”

36) 尹愔, 『無名子集』冊8, 「唐宋八大家」.

37) 심경호, 앞의 책, p.241.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속을 현혹하는 글을 짓는 폐단을 지적하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八大家의 문장으로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이어 策題의 마지막 단락에서도 茅坤의 『唐宋八大家文抄』에 수록된 八大家의 문장을 본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茅坤의 『唐宋八大家文抄』는 조선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당송의 문장이 고문의 전범으로 확립되고, 고문 학습의 주교재로 활용될 만큼 중요시된 책이었다.³⁸⁾ 모곤의 『唐宋八大家文抄』 거질의 도서였기에 李珣, 金昌協 등이 茅坤의 『唐宋八大家文抄』를 다시 選集하여 편찬 간행하는 작업을 하였다. 正祖 역시 茅坤의 『唐宋八大家文抄』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한유의 작품 30편, 유종원의 작품 15편, 구양수의 작품 15편, 소순의 작품 5편, 소식의 작품 20편, 소철의 작품 5편, 왕안석의 작품 7편, 증공의 작품 3편 총 100편을 가려뽑아 內閣活字로 출판하였다.

IV. 맺음말

본고는 숙종 대부터 정조 대까지 출제된 策題 가운데 당대 학술과 관련된 策題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策題의 출제 경향성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주자학 일변도의 흐름 가운데 학술과 문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자학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이 동요되었다. 正

38) 안대희, 「『八大家文十選』해제」, 『八大家文十選』, 학자원, 2015, p.7.

祖代에 이르러 학술적인 측면이나 문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正祖를 중심으로 주자학 중심의 통치이념과 세계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은 肅宗·英祖代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당대 策題에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당대 학술과 관련하여 肅宗·英祖代에 출제된 策題는 理氣心性和 人物性同異에 대한 논의, 朱子의 존송과 朱子書에 대한 시각, 儒家諸書의 조명과 재 탐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金昌協이 試官으로 있을 때 출제한 「辯理氣」는 실제 策題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策題를 출제한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策題가 출제되었던 배경은 四端七情論爭, 人心道心論爭과 함께 조선 시대의 3대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人物性同理論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던 당대의 학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자의 존송과 주자서에 대한 의미부여를 담은 尹鳳朝의 「朱子諸書」와 儒家諸書를 조명하고 재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林象德의 「傳註之作」 역시 당대 학술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正祖代에 출제된 策題는 명말 청초 학술에 대한 비판, 주자학의 정통성과 가치 재확립, 당대 문장의 典範 제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정조 15년(1791)에 抄啓文臣과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정조가 출제한 「俗學」은 정통 性理學을 벗어난 양명학, 고증학, 학자들의 학설, 문장에서 蟲刻鷄距함을 추구하는 七子五子之派의 문장 등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풍조를 이루고 있는 명말 청초 학술에 대한 정조의 비판적 입장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策題로, 정조는 이와 같은 策題의 출제를 통해 정통 朱子學으로의 회귀를 강구하였다. 到記儒生과 抄啓文臣

을 대상으로 출제된 「心」에서도 주자의 해석과 正說을 第一義로 여기고 우위에 둠으로써 朱子學이 공격받는 당대 학술 경향 속에서 朱子學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그 가치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정조의 적극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술을 주제로 출제된 다수의 策題들을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策題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단순한 주제 분류 차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주목할 만한 策題를 중심으로 실제 策題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策題의 출제 경향 및 당대 학술과의 관련성, 그리고 이러한 부류의 策題가 출제된 배경과 원인을 아울러 규명해 보았다. 실제 당대 학술과 관련한 策題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그 속에서 策題의 주제를 둘러싼 당대의 주요 쟁점, 그리고 그 주제를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등 당대의 학술의 흐름 및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들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과 관련된 策題 뿐 아니라, 비교적 策題로 출제 빈도가 높았던 정치·사회·문화 등의 분야의 연구에도 접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추후 연구로 미루어둔다.

【참고문헌】

〈원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科策』[古朝44-가89]

『科策』[한古朝31-115]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2.

尹 愔, 『無名子集』, 韓國文集叢刊 257.

尹鳳朝, 『圃巖集』 韓國文集叢刊 193.

正 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7.

〈DB 및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DB (<http://sjw.history.go.k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연구 논저〉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이담북스, 2020.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안대회, 『『八大家文十選』해제』, 『八大家文十選』, 학자원, 2015.

안소연, 『조선시대 책문책답』, 역사문화, 2019.

윤사순, 『한국유학사: 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 지식산업사, 2012.

김근환, 「栗谷 李珥의 策文 번역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06.

김현옥, 「正祖의 經世思想 研究」, 공주대 박사논문, 2010.

이상욱, 「조선 과문(科文)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5.

- 강혜중, 「古歡堂 姜瑋의 「擬三政揅弊策」에 나타난 작자의식과 서술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제85집, 한국문학회, 2020, pp.97-134.
- _____, 「復齋 李彙濬 「三政策」의 서술 양상과 경세론」, 『열상고전연구』 제72집, 열상고전연구회, 2020, pp.423-458.
- _____, 「계유년(1633) 法制策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75집,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pp.261-288.
- 김동민, 「正祖의 策問: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研究』 제56집, 동양고전학회, 2014, pp.171-207.
- 김문식, 「君師 正祖의 教育政策 研究」, 『민족문화』 제23집, 한국고전번역원, 2000, pp.59-109.
- _____, 「正祖 · 丁若鏞 · 徐有榘의 十三經 이해」, 『다산학』 제16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pp.23-58.
- 김운조, 「〈文體策〉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제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pp.339-362.
- 김현옥, 「정조의 책문에 나타난 애민사상 연구」, 『漢文古典研究』 제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pp.127-154.
- _____, 「정조의 인재관 연구 - 책문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제28집, 근역한문학회, 2009, pp.91-124.
- _____, 「책문에 나타난 정조의 학문관」, 『漢文古典研究』 제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pp.155-176.
- _____, 「成三問과 申叔舟의 策文에 나타난 現實認識 比較」, 『한문학논집』 제33집, 근역한문학회, 2011, pp.35-72.
- 김형수, 「策問을 통해 본 李齊賢의 現實認識」, 『한국중세사연구』 제13집, 2002, pp.179-206.
- 도현철, 「대책문을 통해본 정몽주의 국방 대책과 문무검용론」, 『한국중세사연구』 제26집, 2009, pp.233-264.
- _____, 「이색의 유교교회론과 일본 인식: 새로 발견된 대책문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4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0, pp.151-174.
- _____, 「안축의 대책문과 이민족 대책」, 『한국사상사학』 제3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1, pp.57-88.
- _____, 「대책문을 통해 본 조선 초기 군주성학론: 정도전과 김익정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제183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8, pp.115-144.
- 심재권,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제37집, 한국행정사학회, pp.183-208.
- 심경호, 「조선후기의 경학연구법 분화와 毛奇齡 비판」, 『동양학』 제2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9, pp.37-69, pp.47-48.
- _____,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제127집, 진단학회, 2016, pp.131-157.
- _____,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제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pp.9-65.
- 안소연, 「금남 최부의 정치 활동과 인재관: 성종17년 重試 책문과 최부의 대책문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49집, 2018, pp.199-227.
- 양원석, 「정조 문자책문에서의 문자학제설에 대한 논의 (1)」, 『민족문화연구』 제4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pp.185-225.
- 이상욱, 「조선 후기 과책 참고서의 작법 요령 - 『策型』과 『駢麗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72집, 열상고전연구회, 2020, pp.459-495.
- 임완혁, 「朝鮮前期 策文과 士의 世界 認識 - 『殿策精粹』를 중심으로 -」, 『한문학보』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pp.355-382.
- 장진엽, 「18세기 후반 文字學을 둘러싼 논점들 - 正祖의 文字策과 이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제39집, 남명학회, 2013, pp.241-273.
- 정경주, 「과문대책에 나타난 조선조 문학관 연구 - 조선전기 문장책을 중심으로 -」, 『동양한문학회연구』 제1집, 동양한문학회, 1985, pp.123-160.
- 정수환, 「인조조 과거를 통한 行錢 문답과 行錢策 - 인조 11년(1633) 策問과 對策 분석」, 『東洋古典研究』 제64집, 동양고전학회, 2016, pp.165-193.
- 정순우, 「18세기 ‘俗學’론의推移와 다산」, 『다산학』 제21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pp.153-182.
- 정옥재, 「性齋 許傳의 경세론: 「三政策」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제19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13, pp.405-437.
- 최 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 『책문준적(策文準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pp.381-404.

Abstract

A Study on Chek Jae and Examination Question Trends in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Periods from King Suk Jong to King Jeong Jo Times

Park, Seon-yi

questions of each period's Chek Jae (策題) among Chek Jae associated with academic fields of the time from the period from King Suk Jong to King Jeong Jo times and to identify their mean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cademic field and style of writing diversified from the focus on doctrines of Zhu Xi. This agitated the view of the world and ruling principles centering on philosophies of Zhu Xi. Such tendency emerged clearly in academic or writing-style aspects during the King Jeong Jo times. King Jeong Jo arranged countermeasures to solidify the view of the world and ruling principles centering on philosophies of Zhu Xi. However, state-level awareness on such tendenc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already started from the times of King Suk Jong and King Yeong Jo. Such tendency also appeared on the Chek Jae of the times.

Regarding academic fields of the times, Chek Jae questions during the times of King Suk Jong and King Yeong Jo were divided into discussion on Li-Qi Philosophy and Human and Non-Human Nature Philosophy, view on Reverence of Zhu Xi (朱子) and Zhu Xi Literature(朱子書), and spotlight and re-exploration on Confucian writings (儒家諸書). In case of [Byeo Li Qi (辯理氣)] set when Kim Chang Hyeop (金昌協) was serving as the official, contents described in the actual Chek Jae stated the intention and purpose of Chek Jae in details. The background of such Chek Jae was closely related to the academic trend of the time when the controversy on Human and Non-Human Nature Philosophy actively took place. Such controversy was regarded as one of Joseon Dynasty's

three main discussions including controversies on 4 instincts and 7 emotions (四端七情論爭) and on human mind and moral mind (人心道心論爭). In addition, [Ju Ja Jae Seo (朱子諸書)] by Yun Bong Jo (尹鳳朝) stated reverence of Zhu Xi and significance of Zhu Xi literature while [Jeon Ju Ji Jak (傳註之作)] by In Sang Deok (林象德) pointed out the need for re-spotlight and re-exploration on Confucian writings (儒家諸書). Both Ju Ja Jae Seo (朱子諸書) and Jeon Ju Ji Jak (傳註之作) reflected controversial matters in the academic field of the times. In addition, Chek Jae (策題) during the King Jeong Jo times was divided into criticism on academic literatures of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traditionality of Zhu Xi philosophies and re-establishment of its value, and suggestion of exemplary writing system of the times. For instance, [Sok Hak (俗學)] set by King Jeong Jo for civil officials (抄啓文臣) and Sungkyunkwan students in the 15th year of King Jeong Jo (1791) was a representative Chek Jae (策題) which showed King Jeong Jo's critical view on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s academic literatures such as Yang Ming's Philosophy deviating from the traditional Neo-Confucianism, Philology, theories of scholars, and Chilja and Ohja (七子五子之派) writing system that were trending among scholars of the times. King Jeong Jo set such Chek Jae to return to the traditional Zhu Zi philosophies. [Sim (心)] set for Confucianists qualified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Civil officials (抄啓文臣) also reflected King Jeong Jo's intentions of regarding Zhu Xi interpretations and theories as the primary principle and putting the priority to recover the traditionality of Zhu Xi philosophies and re-establish the values under academic trends of criticizing Zhu Xi philosophies.

Key Words : chek jae (策題), chaekmun (策問), Sukjong (肅宗), Yeongjo (英祖), Jeongjo (正祖), scholarship

박선이

소속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 전공 박사 수료

전자우편 : dudu0218@naver.com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